



꿈과 현실 속 숨은그림찾기

비디오 아티스트 **윤애영**

비디오는
 흩어진 기억의 흔적들을 주어 담고,
 이미 지나간 순간을
 영상을 통해 기억 속에 새겨지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날려 보내고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내 영혼은 비디오 영상에 융합되고 녹아버려
 하나의 작품이 되어 혼연일체를 이루지요.

여러 공간과 여러 시간에서 동시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꿈을 꾸는 그녀는 영상이 움직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순간의 삶이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다. 무의식의 풍경, 자의식의 도달을 보여주는 대형 설치작품인 「비밀의 정원」을 통하여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미술관, 생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 프랑스 생프랑스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등 유럽 전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녀의 꿈과 현실의 세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오랫동안 파리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얼마나 계셨는지요? 비디오 영상 설치 작업은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저의 생각과 의도를 페인팅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재학시절 매일 못으로만 쿵쿵거리며 작업하는 저에게 교수님께서 “네 아버지 목수니?”라고 할 정도 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을 찾아 헤매었고 평면의 2차원적 세계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을 항상 시도했죠. 89년 미대 졸업 후 여전히 풀지 못한 갈증을 풀기위해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파리 보자르 재학시절 우연히 파리의 차이나타운 근처의 허름한 건물 안에서 처음 비디오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매력을 느끼며 비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고 나의 욕구를 비디오영상 설치작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과 파리에서의 비디오영상작업의 흐름과 경향을 소개해 주세요.

유럽이나 파리는 실험적 정신과 단순한 깊이에서 철학을 찾는 것이 단연 돋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80년대 말 90년도 초 많은 크고 작은 비디오 페스티벌들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많은 예산으로 제작되어 발표되는 것과 달리 주로 이곳저곳 작은 카페에서



비밀정원 2005 Video installation

서로 보여주고 발표하는 작가들의 만남의 시간들로 이루어졌죠. 허름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진지하게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고 토론하는데 감동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애영 작가님은 테크놀로지 작업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주 활동무대가 외국 이어서 작가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의 작품세계와 그간 파리에서의 작업한 활동과 평가를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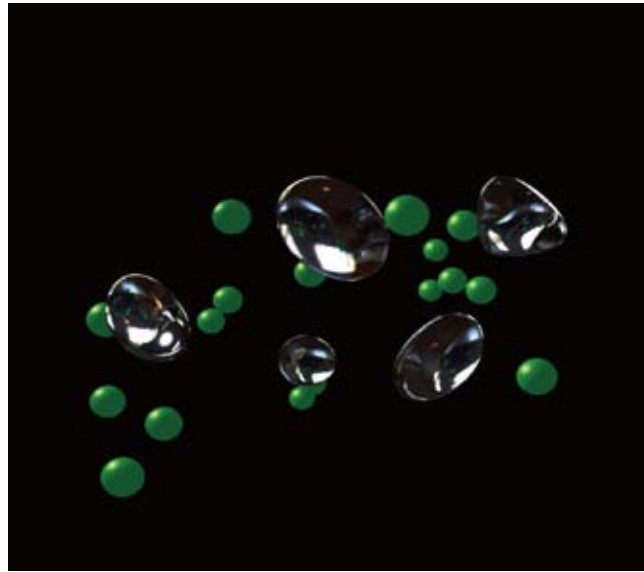
보자르 졸업과 동시에 파리 외곽에 자리 잡은 악스날 이틀리에 개방전에서 발탁되어 화랑과 연결되어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랑을 통하여 유럽 전역 독점계약을 하게 된 저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러시아, 이태리 등 여러 나라에서 초대 개인전, 국제아트페어, 비엔날레, 페스티벌 등 여러 전시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지요. 현재는 파리, 룩셈부르크, 두바이 3개 전속화랑이 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상생활 일기를 쓰기보다는 꿈 일기 쓰는 것을 더 좋아했고 지금도 꿈속의 의식들을 자주

적어놓아요. 꿈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너머 알 수 없는 시간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장자의 나비의 꿈(胡蝶夢)처럼 내가 어딘가에 또 다른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을 잘 때 꿈속의 다른 시간, 평행선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의 작업은 현재라는 진행형에서 오늘날 코드에 맞는 시간퍼즐조각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자의 나비의 꿈(胡蝶夢)은 장자의 철학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를 당시 그 시대의 언어인 ‘나비’를 통해 이야기 했다면, 저는 ‘작업’이란 아버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대의 언어로 표현방법이 진화되었다라고 보면 되지요. 시간여행, 흔적, 암시들을 주위 모아 오늘이란 시간에 맞추어 시간 속에 숨겨진 숨은그림찾기(꿈, 우주, 과거, 현재, 미래 인간 삶 세계에 대한 의문 호기심에 대한 갈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이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정치, 문화, 인간, 삶, 히로애락, 전쟁, 탄생, 죽음, 전쟁, 폭력 등) 세계를 다시 한 번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삶의 실험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Find the Hidden Picture



비누방울 2009 3D Video, Single channel



미지의 공간 2010 혼합매체 80x100cm

국제아트페어 두 군데에 출품을 하셨는데 작품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요. 작품도 훨씬 감각적이고 아름다운데...

항상 빛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는 빛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타임기든」 연작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아트페어에서 선보인 「Unknown space」는 검은색 알루미늄 판 위에 버튼과 LED, 스위치를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행위로 새로운 차원의 시, 공간세계를 관객이 직접 만들거나 또는 그 신비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스위치 하나가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버튼(스위치)이란 오브제를 이용했지요.

하나의 빛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빛이 모여 집이 되고 마을이 되고 도시, 나라, 지구, 우주가 되며,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 호기심에 대한 느낌으로 작업을 한 것이지요.

미술시장이 전반적으로 컬렉터의 취향에 맞게 유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회화작품에 비해 컬렉션이 많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컬렉터는 어떤 분들인지, 컬렉터와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0년 전 파리의 전속화랑을 통해 스페인의 아르고 아트페어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물론 화랑도 작품판매는 기대를 하지 않고 저의 작품을 알린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오픈 바로 당일 유명한 컬렉터(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컬렉션 하면서 화랑을 운영하시는 린다 고원)한 분이 제 비디오설치작품을 2개나 산거예요. 재미있는 일은 그 당시 컬렉터 분의 실수로 제 작품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인 가격으로 송금을 했지 뭐예요.

물론 화랑에서 정정은 했지만요. (웃음) 당시 저의 전속 화랑은 3년 동안 아르고에 참가했지만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한 번도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작품 판매에 대해 무척 기뻐했고, 저 또한 진심으로 제 작품을 사랑하고 컬렉션 해준 것에 대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후 화랑에서는 이듬해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화랑부스 외에 저의 개인부스를 하나 더 얻어 크게 비디오 설치를 발표하게 되었고,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컨택이 되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놈 파운데이션 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초대전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선 2008 video installation

비디오영상작업이 미술시장에서 특별한 장르로 취급되어 여류작가로서 쉽지 않는데 생활은?

작업을 하면서 여류작가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작업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비디오 작업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시도해보기도 하고, 그 당시 컴퓨터 없이 하는 수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편집도 부정확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원하는 내 작업을 위해 끊임없이 KBS, 삼성, LG 지사장님들께 도움을 청했고 양해를 얻어 그곳의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아트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창작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시간의 열쇠, 이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에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숨은 그림찾기에 필요한 비디오라는 재료를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작업이란 나 스스로 삶의 캔버스 위에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녹여 시간과 매체의 붓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연금술사가 되는 것 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작품이 되어 춤추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시계획은?

내년에 슬로바키아 포프라드 미술관에, 갤러리 아트사이드(중국), 갤러리 알베르 에르나무에서 초대 개인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술시장에서 비디오는 이제 더이상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과학문명 발달에 따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앞으로 수많은 매체를 찾아 작업하는 붓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며 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고 느끼게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맞추어 대중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향연을 향한 연금술사가 되어 더 멋지게 또 다른 시간여행을 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에디터 정나연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인간이 로봇이고 로봇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임기든 2008 light installation